

한국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중심으로 -

김 선 호*

1. 머리말
2. 비행사단의 병력규모
3. 비행사단의 병력구성
4. 비행사단의 무기현황
5. 비행사단의 무기상태
6.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 창설되었다. 그러나 인민군 창설 당시 공군은 창설되지 않았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에도 공군은 민족보위성 예하 항공대대 수준이었다. 항공대대는 1948년 말 항공련대로 증편되었고, 1949년 말 항공사단으로 증편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비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참전했다. 개전까지 인민군에서 공군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창설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소련의 각기 다른 정세인식 때문이었다.

사실 비행사단은 인민군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무장력이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인민군 창설이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비행사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는 한편, 계속해서 소련에 공군 창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련은 인민군이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소련은 인민군이 강력한 공군과 기갑부대를 함께 보유한다면,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해협을 건너 대마도, 나아가 사세보까지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¹⁾

하지만 북한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1948년 인민군 창설이후 북한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했다. 북한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과 조선인부대의 입북을 협의하는 한편, 계속해서 소련에 인민군 확장에 필요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인민군은 내부적으로 항공부대를 증편하고 공군 창설에 필수적인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했다. 그 결과 인민군 항공부대는 정부수립 후 3개월만에 항공련대로 증편되었고, 1년 뒤에는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2차대전 이래 현대전의 승패는 각 병종의 연합작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치는가에 달려있었다. 특히 현대전에서 공군의 전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였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소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금까지 비행사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비행사단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성과는 없다. 다만, 조선인민군 연구의 일환으로 비행사단에 대한 몇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다. 특히, 기존연구는 비행사단의 무장수준과, 군수충원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 비행사단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방부에서 진행되어 왔다.²⁾ 이같은 연구경향은 한반도가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96~297쪽.

2) 국방부에서 진행한 북한 공군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다양하다. 국방부의 연구성과는 주로 공식전사에 집대성되었다. 대표적인 공식전사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공군본부 정훈감실, 『空軍史』 제1집, 공군본부, 19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분단된 상황에서 인민군 공군에 대한 연구가 안보에 직결되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편찬연구소는 2004년 발간한 『6·25전쟁사』에서 노획문서·구소련문서·미군문서와 기존 연구성과를 망라해 비행사단의 기본편제, 부대주둔지, 비행기 보유현황, 훈련과정을 밝혀냈다.³⁾ 개인 연구자로서는 장준익이 조선인민군 창군과정의 일환으로 북한공군의 창설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⁴⁾ 최완규는 북한 공군의 창설시기를 시대별로 살펴보았다.⁵⁾ 김용현은 인민군 형성과정의 일환으로 공군 창설과정을 연구하였다.⁶⁾ 김광수는 노획문서를 바탕으로 비행사단의 편제와 비행기 보유현황, 조종사 보유현황을 밝혀냈다.⁷⁾ 기존연구에서는 비행사단의 창설일, 비행사단의 기본편제, 사단장·부사단장, 조종사 훈련과정, 비행기 보유현황에 대해 밝혀졌다. 기존연구의 논점을 정리해 보면, 인민군 공군이 1949년 이후 소련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하고 소련비행기를 도입해 급속히 사단규모로 증강하였다. 그 결과 개전 당시 북한 공군은 남한 공군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북한 공군은 훈련된 조종사 약 80명으로 극히 부족했고 수준도 떨어졌으며, 항공기는 2차대전 당시 사용하던 프로펠러기로 미 공군이 보유한 제트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⁸⁾

1949년 12월 이후 북한의 조종사와 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양성되었고, 1950년 4월부터 소련에서 작전용 항공기가 대거 지원된 것은 사실이다.⁹⁾ 그러나 인민군 공군이 과연 개전당시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건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창군전사』, 육군본부,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293~296쪽.

4)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34~37; 45~47쪽.

5)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6)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94.8, 33~62쪽.

7)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논문, 2008, 74쪽.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747쪽; 김광수, 앞의 논문, 74쪽.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294~295쪽.

수 있는 전력을 갖추었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개전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북한 공군이 궤멸된 이유가 오직 미 공군과의 전력차이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북한 공군의 내부적 요인은 없었을까? 이 글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개전당시 북한 공군이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멸된 내부적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통해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의 실제전력을 사실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력은 군사무기체계, 장비, 조직, 전술교리, 군사훈련, 기반시설¹⁰⁾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글은 북한 공군의 전력 중에서 무기체계, 장비,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는 1949년 12월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시점이다. 이 시기는 비행사단이 연대급에서 사단급으로 발전하는 시기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미군노획문서다. 특히 1950년 2월 28일 비행사단 대열과에서 생산한 『일보(日報)』를 주자료로 활용하였다.¹¹⁾ 『일보(日報)』에는 1949년 12월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비행사단에서 생산된 각종 통계와 신청서, 증명서가 편철되어 있다. 특히, 이 자료 속에는 전투서열, 전술규정, 인원통계, 무기통계, 인사이동 등 비행사단에서도 ‘비밀’로 분류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북한 공군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문서철이다. 북한 공군의 실제전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유산과 소련의 군사원조가 비행사단 전력에 끼친 영향¹²⁾, 비행사단의 군사훈련내용과 전술교리, 북한 지도부의 전쟁구상과 비행사단 전력의 상관관계도 해명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10) 합동참모본부, 「한글용어사전」, 『군사용어해설』,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http://jcs.mil.kr>).

11) 師團대열과, 『일보』, 1950.2.28,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17(이하 『일보』로 줄임).

12)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일부 해명하였다.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연구』 15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2.8.

2. 비행사단의 병력규모

1948년 2월 8일 북한에서는 인민군이 창설되었다. 인민군 창설직후 북조선로동당은 평양학원 항공대대를 장차 인민군 공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평양학원 항공대대는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수립과 동시에 평양학원에서 독립해 민족보위성 예하로 편입되었다.¹³⁾ 항공대대는 민족보위성 예하로 편입되면서 조선항공대와 통합해 군사학교에서 정규 항공부대로 개편되었다. 조선항공대와 평양학원 항공대대는 민족보위성 항공대대로 통합되어 전투중대·기술중대·교도중대가 되었다.¹⁴⁾ 항공대대의 전력은 소련군이 철수한 1948년 12월 말에 급격히 증강되었다. 소련군은 1948년 12월 말 철수하면서 인민군에 전폭기 IL-10, 전투기 YAK-9 등 약 100대의 비행기를 인계했다고 알려져 있다.¹⁵⁾ 이를 바탕으로 항공대대는 1948년 11월 1일 항공련대로 증편되었다.¹⁶⁾

정부수립후 북한정부는 본격적으로 인민군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1949년 4월경 김일성은 인민군을 증편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1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인민군 증편에 필요한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하였다. 항공사단은 1949년 9월에 편성할 계획이었다. 항공사단은 공격기와 전투기를 각각 43대씩 보유한 2개 항공련대로 구성하며, 간부양성이 가능한 “독립 비행훈련연대”¹⁷⁾를 창설할 예정이었다.¹⁸⁾ 항공사단은 계획보다 3개월 늦어진 1949년 12월에 창설되었다. 이날 항공련대는 항공사단으로 승격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8~699쪽.

14) 김선호, 앞의 논문, 276쪽.

15) 장준익, 앞의 책, 103~104; 131쪽.

16) 기존 연구에서는 항공련대가 1949년 1월에 창설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항공련대는 1948년 11월 1일 창설되었다. 김선호, 앞의 논문, 277쪽.

17) 교도연대를 말한다.

18) 「쉬피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49.5.1)」, 바자노프·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69~70쪽;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134~135쪽.

되었다. 항공사단 사단장은 왕련이 맡았고, 부사단장은 이활이 맡았다.¹⁹⁾ 항공사단의 부대명칭은 1950년 1월 17일 “제11비행사단”으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었고, 비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²⁰⁾

현재까지 비행사단의 병력규모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는 노획 문서에서 비행사단의 병력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였다. 1950년 2월 28일 비행사단 대열과에서 작성한 『日報』가 그것이다. 이 내부문서를 통해 비행사단의 병력규모를 확인해 보자.

문서에 있는 가장 빠른 통계는 1950년 1월 3일 비행사단의 인원통계이다. 1월 2일까지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603명이었다. 1월 3일 비행사단에는 “신대원” 230명이 “전사”로 편입되었다. 신대원을 포함해서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833명이었다. 신대원을 제외한 구대원 2,603명 중 군관은 531명, 하사관은 608명, 전사는 1,404명이었다.²¹⁾ 1월 25일에도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833명으로 변함없다. 예하 부대의 병력을 살펴보면, 제1기술대대는 677명(23.9%), 제2기술대대는 850명(30%)이었다. 교도연대는 439명(15.5%), 습격기연대는 205명(7.2%), 추격기연대는 203명(7.2%)이었다. 사단본부는 95명(3.4%)이었고, 사단 직속기구에는 총 364명(12.8%)이 배치되었다.²²⁾ 전체 비행사단병력 중 추격기연대에 7%, 습격기연대에 7.2%, 교도연대에 15.5%가 배치되었다. 2개 기술대대에는 사단병력의 53.9%가 배치되었다. 사단병력의 16.2%는 사단본부와 사단 직속부대에 배치되었다. 정리해 보면,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은 기술대대에 절반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교도연대에 15.5%가 배치되었고,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는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9쪽; 『(비밀) 개인비행수첩: 최현옥』, 제855군부대, NARA, RG 242, SA 2007, Box 8, Item 13E. 이활의 직책은 『개인비행수첩』을 참조했다.

20) 제56추격기연대 참모부, 「번호 및 대호규정에 관하여」(1950.1.17), 제2대대, 『(극비) 상부지시문첩』, 1950.5, NARA, RG 242, SA 2010, Box 3, Item 164.

21) 제845부대장, 「일보표」(1950.1.3), 師團대열과, 『日報』.

22) 「人員統計表」(1950.1.25), 師團대열과, 『日報』.

교도연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만 배치되었다.

2월 2일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879명이었다. 1월 25일에 비해 46명이 증가했다. 군관수는 525명으로 1주일전과 동일했다. 하사관은 527명으로 68명이 증가했으며, 병사는 1,827명으로 22명이 감소했다.²³⁾ 보름후의 통계를 보면, 2월 17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인원은 2,935명이었다. 군관은 548명, 하사관은 798명, 병사는 1,540명이었다. 2월 2일에 비해 군관은 23명이 증가했고 하사관은 271명이 증가했으나, 병사는 오히려 287명이 감소했다. 단, 2월 17일 통계에는 2월 2일까지 통계에 없었던 부대가 추가되었다. 새로 편성된 부대는 제3기술대대, 검찰소, 정치보위부였다.²⁴⁾ 2월 17일 시점에 비행사단은 하사관을 대폭 증원하고 하사관과 비슷한 수의 병사를 감축했다. 이는 소련으로부터 비행기 도입이 증가하고 비행훈련이 강화되면서 기술부문을 담당하는 하사관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행사단의 총병력을 부대별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50년 2월 20일 통계이다. 이 통계는 비행사단의 내부문서 중 예하부대가 모두 망라된 중요한 자료이다. 1950년 2월 20일 현재 「비행사단 각 구분대별 재적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1> 비행사단 각 구분대별 재적인원(1950년 2월 20일 현재)²⁵⁾

구분대 직위	사단 본부	통신 중대	항공 감시소	폭격 장	촬영 소대	아전 우편 소	경비 소대	수리 소	추격 기 연대	습격 기 연대	교도 연대	제1 기술 대대	제2 기술 대대	제3 기술 대대	검찰 소	정치 보위 부	계
군관	68	8	1	1	1	1	1	21	118	141	98	51	32	6	7	42	597
하사관	22	23	1	1	3	5	2	114	85	132	72	175	155	6	2	0	798
병사	12	41	9	14	0	4	12	93	34	131	307	397	462	24	0	0	1,540
계	102	72	11	16	4	10	15	228	237	404	477	623	649	36	9	42	2,935

23) 「人員統計表」(1950.2.2), 師團대열과, 『日報』.

24) 「人員統計表」(1950.2.17), 師團대열과, 『日報』.

25) 제855부대 대열과장 김명재, 「일보표」(1950.2.21), 師團대열과, 『日報』.

1950년 2월 20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935명이었다. 2월 2일 총병력 2,879명에 비해 56명이 증가했다. 전체 비행사단병력 중 추격기연대에 8.2%, 습격기연대에 13.8%, 교도연대에 16.2%가 배치되었다. 3개 기술대대에는 사단병력의 44.5%가 배치되었다. 제1기술대대에 21.2%, 제2기술대대에 22.1%가 배치되었다. 제3기술대대는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1.2%만 배치되었다. 사단본부에는 3.5%가 배치되었고, 사단 직속 기구에는 13.5%이 배치되어 사단병력의 17%가 이곳에 배치되었다. 사단 직속기구 중에서는 수리소에 가장 많은 병력이 배치되었다. 정리해보면,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의 병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기술대대였고, 다음은 교도연대,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였다.

2월 20일과 1월 25일의 비행사단 총병력을 비교해보자. 제1기술대대는 -54명(677 → 623), 제2기술대대는 -201명(850 → 649), 교도연대는 +38명(439 → 477), 습격기연대는 +199명(205 → 404), 추격기연대는 +34명(203 → 237), 사단본부는 +7명(95 → 102), 사단 직속기구는 +32명(364 → 396)이 증감하였다. 총병력은 1월 25일에 비해 2월 20일이 56명 증가했으므로 총병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병력이 감소한 곳은 제1기술대대와 제2기술대대였다. 이것은 새로 창설된 제3기술대대의 편제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 기술대대 병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기술대대의 병력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제3기술대대가 제2기술대대 병력을 기반으로 충원될 것임을 보여준다. 기술대대를 제외한 다른 부대는 모두 조금씩 병력이 증가하였다. 병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대는 습격기연대로 연대병력이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1월 25에는 습격기연대와 추격기연대의 병력이 거의 비슷했으나, 2월 20일에는 습격기연대가 추격기연대 병력의 약 두 배가 되었다. 이것은 개전을 앞두고 군사 목표물에 대한 폭격임무를 수행하는 습격기연대의 비중을 확대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비행사단 병력을 직위별로 살펴보자. 군관은 총 597명(20.3%), 하사관은 총 798명(27.2%), 병사는 총 1,540명(52.5%)이었다.

비행사단 병력의 절반 이상은 병사였다. 부대별 군관수를 보면, 군관이 많이 배치된 곳은 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교도연대로, 전체군관의 60%가 이 부대에 배치되었다. 전투부대와 교도부대에 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항공감시소·폭격장·촬영소대·야전우편소·경비소대의 경우 부대장 외에는 군관이 없었다. 부대별 하사관수를 보면, 하사관은 기술대대에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습격기연대에는 추격기연대보다 많은 하사관이 배치되었는데, 습격기연대의 총병력이 추격기연대보다 많았기 때문에 두 부대의 하사관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다음으로 수리소와 교도연대에 하사관이 많이 배치되었다. 유일하게 정치보위부에만 하사관이 배치되지 않았다. 부대별 하사관수를 보면, 기술부대(2개 기술대대·수리소)에 하사관이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사관의 91.8%가 전투부대(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기술부대(2개 기술대대·수리소)·교도부대에 배치되었고, 사단본부와 사단직속기구에는 거의 배치되지 않았다. 부대별 병사수를 보면, 병사가 많이 배치된 곳은 제2기술대대·제1기술대대·교도연대였다. 전체 병사의 75.7%가 이 부대에 배치되었다. 기술부대와 조종사·항공기술자를 양성하는 교도부대에 병사들을 집중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촬영소대·검찰소·정치보위부에는 병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직위별로 볼 때 교도부대에는 군관·하사관·병사가 직위마다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북한 지도부가 항공병력 육성에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다.

부대별 직위구성을 보면, 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사단본부는 군관 > 하사관 > 병사순으로 구성되었다. 전투부대와 사단지휘부에 군관을 집중 배치하고, 병사는 최소인원만 배치했다. 제1기술대대·제2기술대대·통신중대는 병사 > 하사관 > 군관순으로 구성되었다. 기술부대에는 경비업무를 위해 병사를 가장 많이 배치하고 비행기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하사관을 많이 배치했다. 교도연대는 병사 > 군관 > 하사관순으로 편성되었고, 수리소는 하사관 > 병사 > 군관순으로 편성되었다. 비행학생과 기술

학생을 교육하는 교도연대에는 학생(병사)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교육을 위해 군관을 많이 배치하였다. 수리소에는 비행기 수리작업에 필요한 하사관을 가장 많이 배치했다. 정치보위부는 군관으로만 편성되었고, 검찰소와 촬영소대는 군관·하사관으로만 편성되었다. 제3기술대대는 2월 20일 시점에서야 겨우 병력충원이 시작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사단의 총인원은 1950년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2월 22일 통계를 보면 총인원이 갑자기 4,135명으로 급증한다. 비행사단 대열과장 김명재(金明載)가 작성한 비밀문서인 「隊列人員證明書」에 따르면, 1950년 2월 22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4,135명이었다. 이 가운데 2,935명은 기존병력이었다. 기존병력을 직위·직종별로 보면, 고급군관 2명, 군관 295명, 하사 및 전사 1,867명, 학생 245명, 비행사 180명, 기수 346명 등 총 2,935명이었다. 이 인원은 2월 20일 현재 사단 총인원과 같다. 2월 22일 통계에는 이와 별도로 “신입대원”이란 항목으로 1,200명이 편입되어 있다.²⁶⁾ 2월 21일 비행사단에서 1,200명의 신병을 충원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군 총참모부는 1950년 6월 25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병력을 2,80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²⁷⁾ 이는 2월에 비행사단에 입대한 신병 1,200명을 제외한 통계로 보인다. 위에서 정확히 확인된 통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1950년 2월 22일까지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4,135명이었다. 이 인원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비행사단의 최대병력이다. 이 중 2,935명은 기간병력이었고, 1,200명은 2월 21일에 편입된 신병이었다. 1950년 6월 25일자 소련군 총참모부의 정보를 고려해 볼 때 개전 직전까지 기간병력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월 22일 통계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비행사단은

26) 朝鮮人民軍 855軍部隊 隊列科長 金明載, 「(비밀) 隊列人員證明書」(1950.2.22), 師團대열과, 『日報』.

27)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1951.12.3),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60쪽.

1950년 2월 22일 현재 180명의 비행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연구에서는 개전직전 북한 공군의 비행사를 68명에서 80명으로 추정해왔다.²⁸⁾ 1949년 6월 22일 현재 항공련대에서 실전이 가능한 비행사는 11명이었다.²⁹⁾ 1949년 9월 15일 항공련대는 전투기 조종교육을 마친 조종사 26명을 확보하였다. 또한, 150명의 조종사가 교육을 받고 있었고, 1949년 10월이면 조종사 50명이 교육을 마칠 예정이었다.³⁰⁾ 결국 훈련중이던 150명의 조종사가 1950년 2월 22일까지 조종교육을 완료해 180명의 비행사가 양성된 것이다. 따라서 조종사 150명의 훈련 기간은 1949년 6월부터 계산해도 약 8개월에 불과했다.

이상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직전까지 기록상 확인되는 비행사단의 최대병력은 4,135명이었다. 이 중 2,935명은 기간병력이었고, 1,200명은 1950년 2월 22일에 편입된 신병이었다. 비행사단은 1950년 2월 22일까지 180명의 비행사를 확보했다.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의 병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기술대대였고, 다음은 교도연대,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였다. 비행사단은 2월 2~17일 사이에 제3기술대대, 검찰소, 정치보위부를 신설하였다. 개전직전 병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대는 습격기연대였는데, 이는 개전을 앞두고 폭격임무를 수행하는 습격기의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병력을 직위별로 보면, 군관은 20.3%, 하사관은 27.2%, 병사는 52.5%였다. 군관의 60%는 전투부대와 교도부대에 집중 배치해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항공병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하사관의 91.8%는 전투부대·기술부대·교도부대에 배치해 비행기술원·통신기술원·교육하사관으로 충원하였다. 병사의 75.7%는 기술부대와 교도부대에 집중 배치해 비행학생·기술학생·비행기술원·통신기술원·보병으로 충원하였다. 부대별 직위구성을 보면, 추격기연대·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5), 747쪽; 김광수, 앞의 논문, 74쪽.

29) 「쉬띠포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쿠노프, 앞의 책, 57~59쪽.

30) 「주북한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1949.9.15),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3쪽.

습격기연대·사단본부에는 군관을 집중배치하고, 병사는 필수인원만 배치했다. 기술부대에는 병사를 가장 많이 배치하고 실무를 담당할 기술하사관을 많이 배치했다. 교도연대에는 학생(병사)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교육을 위해 군관을 많이 배치했다.

비행사단의 병력구성을 국군 공군의 병력구성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군 공군의 병력구성을 보면, 1950년 6월 25일 당일 장교 242명, 사병(하사관 포함) 1,655명으로 총 1,897명이었다.³¹⁾ 개전까지 비행사단의 병력구성은 군관 597명, 사병(하사관·병사·신병 포함) 3,538명으로 총 4,135명이었다. 국군의 사병대비 장교비율은 14.6%, 비행사단의 사병대비 장교비율은 16.9%로 신병 1,200명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사단의 장교비율이 높았다. 비행사단의 장교는 국군의 2.5배였고, 사병은 2.1배였다. 국군에 비해 사병보다 장교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비행사단은 국군 공군에 비해 평균 약 2.2배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공격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적군 대비 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는 못했다.

3. 비행사단의 병력구성

다음으로 비행사단의 간부·하사관·병사가 병종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자. 필자는 노획문서에서 비행사단의 「간부인원 병종별 통계표」와 「하사·병사인원 병종별 통계표」를 발견했다. 이 문서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 중 비행사단의 병력구성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비행사단의 간부·하사·전사인원이 부대별·병종별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50년 1월 28일 현재 비행사단의 「간부인원 병종별 통계표」는 다음과 같다.

31) 공군본부 정훈감실, 앞의 책, 213쪽.

〈표 2〉 비행사단 간부인원 병종별 통계표(1950년 1월 28일 현재)³²⁾

병종별 구분대별	참 모			보 병			기 술			포 병			문 화			통 신			후 방			비 행			계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사단본부	25	13	12	10	7	3	14	10	4	4	2	2	19	13	6	26	21	5	14	8	6	6	3	3	118	77	41
습격기1연대	14	3	11	0	0	0	72	64	8	41	13	28	9	4	5	0	0	0	1	0	1	41	34	7	178	118	60
습격기2연대	14	0	14	0	0	0	72	5	67	41	0	41	9	0	9	0	0	0	1	0	1	41	0	41	178	5	173
추격기연대	14	5	9	0	0	0	72	65	7	32	8	24	9	3	6	0	0	0	1	0	1	41	34	7	169	115	54
교도연대	18	2	16	3	0	3	64	55	9	5	4	1	31	13	18	0	0	0	1	0	1	30	18	12	152	92	60
제1기술대대	2	1	1	20	10	10	0	0	0	1	1	0	11	6	5	3	0	3	31	16	15	0	0	0	68	34	34
제2기술대대	2	2	0	20	11	9	0	0	0	1	0	1	11	6	5	3	0	3	31	16	15	0	0	0	68	35	33
제3기술대대	2	0	2	20	0	20	0	0	0	1	0	1	11	0	11	3	0	3	31	0	31	0	0	0	68	0	68
수리소	1	0	1	8	3	5	34	12	22	1	1	0	5	2	6	0	0	0	2	1	1	0	0	0	51	19	32
기상대	0	0	0	12	9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9	3
합계	92	26	66	93	40	53	328	211	117	127	29	98	115	47	68	35	21	14	113	41	72	159	89	70	1,062	504	558

※ 군관 교·강습생 11명과 번역원 10명은 인원에서 제외하였음.

비행사단의 간부는 참모·보병·기술·포병·문화·통신·후방·비행 병과로 구성되었다. 간부의 편제인원은 1,062명이었으나 현재인원은 504명(군관 교·강습생과 번역원 21명 제외)이었다. 편제상 간부의 47.5%만 충원된 상태였다. 부대별로 편제인원 대비 현재인원을 비율순으로 보면, 기상대는 75%, 추격기연대는 68.0%, 습격기1연대는 66.3%, 사단본부는 65.3%, 제2기술대대는 50.7%, 제1기술대대는 49.3%, 수리소는 37.3%가 배치된 상태였다. 전투수행에 필수적인 기상대·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사단본부에 편제인원의 65% 이상을 충원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항공병력을 육성하는 교도연대는 편제인원의 약 60%를 충원했고,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제1·2기술대대도 약 50%를 충원했다. 제3기술대대는 편제상 간부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고, 습격기2연대는 2.8%만 배치

32) 「간부부족 병종별 통계표」(1950.1.28), 師團대열과, 『日報』.

되었다. 이는 제3기술대대와 습격기2연대가 편성되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대별로 배치된 간부수를 비교해보면, 습격기1연대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추격기연대에 115명, 교도연대에 92명, 사단본부에 77명, 제2기술대대에 35명, 제1기술대대에 34명, 수리소에 19명, 기상대에 9명, 습격기2연대에 5명이 배치되었다. 제3기술대대에는 한 명의 간부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투부대인 습격기1연대·추격기연대와 항공병력을 육성하는 교도연대에 많은 간부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사단의 지휘기관인 사단본부에도 다수의 간부들이 배치되었다.

간부들의 편제인원과 현재인원을 병종별로 살펴보자. 편제인원 대비 현재인원을 비율순으로 보면, 기술간부가 64.1%, 통신간부가 60%, 비행간부가 56%, 보병간부가 43%, 문화간부가 40.9%, 후방간부가 36.3%, 참모간부가 28.3%, 포병간부가 22.8% 배치된 상태였다. 기술·통신·비행간부는 50% 이상 충원되었고, 보병·문화·후방·참모·포병간부는 50% 미만이 충원되었다. 전문항공지식이 필요한 기술·통신·비행간부를 먼저 충원해 놓고, 보병·문화·후방·참모·포병간부는 유사시 다른 부문에서 충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월 28일 시점까지도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참모간부가 28.3%만 충원된 것은 비행사단 전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다. 병종별로 배치된 간부수를 보면, 기술간부가 211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비행간부가 89명, 문화간부가 47명, 후방간부가 41명, 보병간부가 40명, 포병간부가 29명, 참모간부가 26명, 통신간부가 21명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비행사단 하사·병사의 병종별 편성을 살펴보자. 1950년 1월 28일 현재 「하사·병사 병종별 통계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비행사단 하사·병사 병종별 통계표(1950년 1월 28일 현재)³³⁾

병종별	구분대별	사단본부 및 직속대			수리소			습격기 2개연대			추격기연대			교도연대			3개 기술대대			합계		
		정수	현수	부족수	정수	현수	부족수	정수	현수	부족수	정수	현수	부족수	정수	현수	부족수	정수	현수	부족수	정수	현수	부족수
		비행학생	하사												0	34	+34				0	34
	병사												196	179	17				196	179	17	
	계												196	213	+17				196	213	+17	
기술학생	하사												0	0	0				0	0	0	
	병사												180	127	53				180	127	53	
	계												180	127	53				180	127	53	
기술원	하사	24	6	18	135	47	88	270	86	184	108	66	42	100	0	100			637	205	432	
	병사	0	4	+4	40	152	+112	0	64	+64	0	15	+15						40	235	+195	
	계	24	10	14	175	199	+24	270	150	120	108	81	27	100	0	100			677	440	237	
통신 기술원	하사	120	13	107													69	37	32	189	50	139
	병사	60	53	7													36	38	+2	96	91	5
	계	180	66	114													105	75	30	285	141	144
보병	하사	60	10	50	11	5	6	36	11	25	15	2	13	13	2	11	556	180	376	691	210	481
	병사	34	65	+31	36	13	23	0	34	+34	0	3	+3	0	7	+7	1,365	1,093	272	1,435	1,215	220
	계	94	75	19	47	18	29	36	45	+9	15	5	10	13	9	4	1,921	1,273	648	2,126	1,425	701
합계	하사	204	29	175	146	52	94	306	97	209	123	68	55	113	36	77	625	217	408	1,517	499	1,018
	병사	94	122	+28	76	165	+89	0	98	+98	0	18	+18	376	313	63	1,401	1,131	270	1,947	1,847	100
	계	298	151	147	222	217	5	306	195	111	123	86	37	489	349	140	2,026	1,348	678	3,464	2,346	1,118

비행사단 하사·병사들의 병종은 비행학생, 기술학생, 기술원, 통신기술원, 보병으로 구성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간부들의 병종과 비교해보면, 비행·기술·통신·보병병과에는 간부와 함께 하사관·병사들도 배치되었다. 그러나 참모·포병·문화·후방병과는 간부로만 구성되었다. 1950년 1월 28일 현재 비행사단 하사·병사는 편제인원의 67.7%(2,346명)가 충원된 상태였다. 같은 날 비행사단 간부는 편제인원의 47.5%가 충원되었으므로, 하사·병사의 충원비율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부대별 하사·병사의 편제인원과 현재인원을 비교해 보자. 충원비율을 보면, 수리소 97.7%, 추격기연대·교도연대 70%, 2개 습격기연대 63.7%, 사단본부 및 직속대 50.5%가 충원된 상태였다. 비행사단 수리소는 거의

33) 「간부부족 병종별 통계표」(1950.1.28), 師團대열과, 『日報』.

완편되었고, 추격기연대와 교도연대의 충원비율도 70%에 달하였다. 습격기연대가 추격기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원비율이 낮은 것은 1개 연대가 1950년 1월에 신편되었기 때문이다. 사단본부 및 직속대는 편제인원의 절반만 충원된 상태였다. 편제인원을 직위별로 살펴보자. 사단본부 및 직속대, 수리소, 2개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는 병사보다 하사관을 더 많이 편제하였다. 특히, 2개 습격기연대와 추격기연대에는 편제상 하사로만 편성할 계획이었다. 전투부대는 기술원과 통신기술원으로 구성해 전투비행과 전투기수리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교도련대와 3개 기술대대는 하사관보다 병사를 더 많이 편제하였다. 특히 교도련대의 병사는 대부분 비행학생·기술학생으로 편성해 항공병력을 양성하고자 했고, 3개 기술대대의 병사는 대부분 보병으로 편성해 비행시설과 기지를 방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부대별 현재인원을 비교해 보자. 총병력 2,346명 중 1,349명이 3개 기술대대에 배치되어 하사·병사의 57.5%가 여기에 배치되었다. 나머지 병력은 교도련대에 349명(14.9%), 수리소에 217명(9.2%), 2개 습격기연대에 195명(8.3%),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151명(6.4%), 추격기연대에 86명(3.7%)이 배치되었다. 기술대대·교도연대·사단수리소에 하사·병사의 대부분이 배치되었고, 전투부대와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는 최소한의 경비병력만 배치되었다. 부대별 현재인원을 직위별로 비교해 보면, 하사관은 3개 기술대대에 217명, 습격기연대에 97명, 추격기연대에 68명, 수리소에 52명, 교도련대에 36명,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29명이 배치되었다. 병사는 3개 기술대대에 1,131명이 배치되어 병사의 61.2%가 이 부대에 배치되었다. 나머지 병사는 교도련대에 313명, 수리소에 165명,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122명, 2개 습격기연대에 98명, 추격기연대에 18명이 배치되었다. 하사관은 각 부대에 비교적 고루 배치되었다. 병사는 3개 기술대대와 교도련대에 집중 배치되었고, 습격기연대와 추격기연대에는 소수만 배치되었다.

비행사단의 현재인원을 병과별로 살펴보자. 비행학생은 원래 하사관

없이 병사로만 편제했으나, 실제로는 하사관 34명이 배치되었고, 병사는 편제인원보다 9% 부족하게 배치되었다. 비행학생은 비행사단 부대 중 교도련대에만 배치되었다. 기술학생은 하사관 없이 병사로만 편제했고, 실제로도 병사 127명만 배치되어 편제인원보다 30% 부족했다. 기술학생도 비행사단 부대 중 교도련대에만 배치되었다. 기술원은 하사관이 편제인원보다 68% 부족했고, 병사가 587% 많이 배치되었다. 기술원은 수리소에 199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고, 다음으로 2개 습격기연대에 150명, 추격기련대에 81명,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10명이 배치되었다. 교도련대와 3개 기술대대에는 기술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통신기술원은 하사관과 병사 모두 편제인원보다 7% 부족하게 배치되었다. 통신기술원은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114명, 3개 기술대대에 75명이 배치되었다. 수리소, 2개 습격기련대, 추격기련대, 교도대대에는 통신기술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보병은 하사관이 편제인원보다 70% 부족했고, 병사는 15% 부족하게 배치되었다. 특히 3개 기술대대에 보병의 89%(1,273명)가 집중 배치되었다. 나머지 병력은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75명, 2개 습격기련대에 45명, 수리소에 18명, 교도련대에 9명, 추격기련대에 5명이 배치되었다. 보병은 비행사단 병종 중 유일하게 모든 부대에 배치되었다. 결국, 비행학생과 기술학생은 교도련대에만 배치되었고, 편제계획과 달리 비행학생에 하사관을 일부 배치해 조종사로 양성하고자 했다. 기술원은 원래 대부분 하사관으로 충원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병사가 더 많이 충원되었다. 기술원은 대부분 수리소·습격기연대·추격기연대에 배치되었다. 통신기술원은 하사관이 74% 부족했고, 사단본부 및 직속대와 기술대대에만 배치되었다. 보병은 89%가 기술대대에 배치되었고, 사단 병종 중 유일하게 모든 부대에 배치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간부인원 병종별 통계표」와 「하사·병사 병종별 통계표」의 인원을 종합해보자. 1950년 1월 28일 현재 비행사단의 편제인원은 총 4,526명이었다. 이 중 간부는 1,062명, 하사·병사는 3,464명이었다. 비행사단의 현재인원은 총 2,850명이었다. 이 중 간부는 504명,

하사·병사는 2,346명이었다. 편제인원 대비 현재인원의 비율을 보면, 1월 28일까지 비행사단은 편제인원의 63%만 충원된 상태였다. 간부는 47%, 하사·병사는 68%가 충원되었다. 간부는 하사·병사에 비해 절반도 충원되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행사단의 창설이 3개월 동안 지연되었다. 위의 통계를 통해 창설이 지연된 이유가 사단편성에 필요한 병력 부족문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창설한지 3개월이 된 시점에서 비행사단은 완편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간부부족문제는 심각했다. 기록상 확인되는 비행사단의 최대병력은 4,135명(2월 22일 현재)이었다.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편제인원 4,526명에 비해 391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2월 22일 충원된 1,200명은 신병이었으므로 이들을 몇 개월 만에 정규군으로 양성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53%의 간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완편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행사단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편제인원을 충원하지 못하였고, 병력의 29%는 배치되지 4개월밖에 안된 신병이었다.

이상에서 밝혀진 병력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대별 현재인원을 보면, 전투수행에 필수적인 기상대·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사단본부의 편제인원의 65% 이상을 충원했다. 항공병력을 육성하는 교도연대는 약 60%를 충원했고,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제1·2기술대대는 약 50%를 충원했다. 제3기술대대와 습격기2연대가 창설되지 얼마되지 않아 간부가 거의 배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개 부대는 개전 후에도 정상적인 부대 운용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대별 간부배치를 보면, 간부는 전투부대인 습격기1연대·추격기연대와 항공병력을 육성하는 교도연대에 주로 배치되었다. 기술·통신·비행간부는 50% 이상 충원되었고, 보병·문화·후방·참모·포병간부는 50% 미만이 충원되었다. 전문항공지식이 필요한 기술·통신·비행간부를 먼저 충원해 놓고, 보병·문화·후방·참모·포병간부는 유사시 다른 부문에서 충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1월 28일 시점까지도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참모간부가 28.3%만 충원된 것은 비행사단 전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다. 간부병종을 보면 기술간부와 비행간부가 다른

병종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개전에 대비해 기술간부와 비행간부를 집중 배치해 기술원과 비행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비행사단의 비행·기술·통신·보병병종에는 간부·하사관·병사가 모두 배치되었다. 그러나 참모·포병·문화·후방병종은 간부로만 구성되었고, 하사관·병사는 배치되지 않았다. 1950년 1월 28일 현재 간부는 편제인원의 47.5%가 충원되었음에 비해 하사·병사는 편제인원의 67.7%가 충원되었다. 부대별 하사·병사의 현재인원을 보면, 비행사단 수리소는 거의 완편되었고, 추격기연대와 교도연대의 충원비율도 70%에 달하였다. 사단본부 및 직속대는 편제인원의 절반만 충원된 상태였다. 하사·병사의 대부분은 기술대대·교도연대·사단수리소에 배치되었고, 전투부대와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는 최소한의 경비병력만 배치되었다. 비행사단은 편제 계획과 달리 비행학생으로 하사관을 일부 배치했고, 기술원도 원래 하사관으로 충원하고자 했으나 병사가 더 많이 충원되었다. 통신기술원도 편제 인원보다 하사관이 적게 배치되었다. 원래 기술원·통신기술원으로 배치하려던 하사관을 개전에 대비해 조종사 양성을 위해 비행학생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병의 89%는 기술대대에 배치되었고, 사단 병종 중 유일하게 모든 부대에 배치되었다. 비행사단의 보병은 대부분 경비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4. 비행사단의 무기현황

다음으로 비행사단의 무기현황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비행사단의 무기현황은 구소련 문서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가 밝혀졌다. 1949년 6월 22일 현재 항공련대는 총 65대의 전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전투기가 48대와 훈련용 전투기가 17대였다. 반면에 실전이 가능한 비행사는 11명뿐이었다. 쉬뜨코프의 평가에 따르면, 인민군 공군의 전력은 전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³⁴⁾ 1949년 9월 15일 주북한 소련대사 쉬띠꼬프는 인민군의 현황에 대한 보고에서 공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949년 8월 1일 현재 인민군 공군에는 “비행훈련연대”³⁵⁾가 있으며, 2개 연대로 구성된 “혼성비행사단”의 편성이 계획되어 있었다. 공군은 현재 총 74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종류별로 보면, 추격기(YAK-9) 24대, 습격기(IL-10) 24대, 훈련과 전투 겸용 비행기(Uyak & Uil) 18대, 훈련기(YAK-18)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군은 전투기 조종교육을 완료한 조종사 26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50명의 조종사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으며, 10월이면 전투기 조종이 가능한 조종사 50명이 교육을 마칠 예정이었다.³⁶⁾ 항공련대시절 공군이 보유한 비행기는 총 74대였다. 그리고, 1949년 6월 소련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군사장비 중에는 비행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이 제공하기로 한 비행기는 총 90대였다. 종류별로 보면, IL-10습격기 30대, YAK-9추격기 30대, YAK-18폭격기 16대, Uyak & Uil 10대, PO-2훈련기 4대였다.³⁷⁾

필자는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노획문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행사단 내부문서에서 무기·기재현황을 기록한 자료를 발견하였다. 먼저, 1950년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의 무기·기재 보유현황을 살펴보자. 비행사단이 창설된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34) 「쉬띠꼬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쿠노프, 앞의 책, 57~59쪽.

35) 항공련대를 말한다.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1949.9.1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2쪽.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1949.9.1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7쪽.

<표 4> 비행사단 무기·기재 보유현황(1950년 1월 3일 현재)³⁸⁾

병기명칭	보총	자동총	경기관총	권총(TT)	권총(나간)	승용차	화물차	전문차	위생차	추격연습기	추격전투기	습격연습기	습격전투기	연습기	
군기재수	289	196	31	149	2	3	19	9	1	9	24	9	24	9	
대내不在 ³⁹⁾	140	80	15	30	0	1	6	3	1	0	0	0	0	0	
대내수리소	0	0	0	0	0	0	0	0	0	1	1	0	0	0	
현재	계	149	116	16	119	2	2	13	6	0	8	23	9	24	9
	良	149	116	16	119	2	2	13	6	0	8	23	9	24	9
	不良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행사단은 1950년 1월 3일 현재 총 75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전투기가 48대, 전투연습기가 18대, 연습기가 9대였다. 기존 전사는 1949년 말 현재 북한 비행장에 배치된 전투기에 대해 “연포비행장에 YAK-7B 10대, YAK-11 12대, IL-10 18대, 신막비행장에 YAK-7B 10대, IL-10 2대, 평양비행장에 YAK-7B 20대, YAK-11 2대, IL-10 48대 총 122대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위 표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1949년 6월까지 소련이 제공하기로 한 90대의 비행기도 1950년 1월 3일까지 인계되지 않았다. 1949년 8월 1일 항공련대가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는 총 74대로 전투기 48대, 전투연습기 18대, 연습기 8대였다.⁴¹⁾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사단에는 연습기 1대만이 더 지급되었을 뿐이다. 위 표에 보이듯 추격연습기 1대와 추격전투기 1대는 고장이 나서 비행사단 수리소에서 수리중이었다. 북한 공군은 항공련대에서 사단으로 증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전력은 증강되지 않았다. 또한, 사단의 창설이 3개월 동안

38) 제845부대장, 「일보표」(1950.1.3), 師團대열과, 『日報』.
 39) 야외훈련, 대외직일, 대외경리작업 등을 위해 사단 병력이 휴대하고 나간 병기를 뜻한다.
 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0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295~296쪽.
 41) 「쉬띠꼬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크노프, 앞의 책, 57~59쪽.

지연된 것은 사단편성에 필요한 비행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기배당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같은 수의 비행기를 배당했다는 점이다. 위 표를 보면 추격연습기·추격전투기와 습격연습기·습격전투기의 배당 비행기수가 동일하다.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가 보유하고 있던 연습기·전투기는 각각 33대였다. 개인화기는 보총 289정, 자동총 196정, 경기관총 31정, 권총 151정이 지급되어 있었다. 군기재로는 승용차 3대, 화물차 19대, 전문차(특수차) 9대, 위생차 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무기와 기재의 상태는 모두 양호했다. 비행사단의 개인화기는 대부분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4월 25일 현재 비행사단 교도연대 제3대대의 총인원은 248명이었다. 그러나 교도연대에 지급된 무기는 거의 없었다. 제3대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보총 10정뿐이었고, 탄환도 보총탄 155발이 전부였다.⁴²⁾ 개전직전에도 비행사단의 개인화기는 대부분 전투연대가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14일 교도연대 제3대대가 보유한 무기는 보총 4정, 권총 1정이 전부였다.⁴³⁾

사단이 창설된지 두달이 넘어서도 무기·기재현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50년 2월 20일 현재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는 모두 82대였다. 이 중 전투기가 46대, 전투연습기가 14대, 연습기가 22대였다. 한달 반 사이에 전투기는 2대가 줄어들었고, 전투연습기는 4대, 연습기는 13대가 늘어났다. 전투기 2대는 수리중이었을 것이다. 전투연습기와 연습기가 총 17대 증가했는데, 1월 3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소련에서 17대의 비행기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화기는 1월 3일의 보유량과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신호총 1정이 새로 지급되었다. 군기재도 큰 변화가 없었다. 위생차 1대가 다른 부대로 이전되었고, 모터사이클 1대와 트랙터 1대가 새로 지급되었다. 무기와 기재상태는 모두

42) 教導聯隊 三大隊長 김영근, 『戰鬪日報』, 1950.4.25,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39.

43) 三大隊長 김한옥, 『일보표』 (1950.5.8); 제3대대상급부관 리명록, 『일보표』 (1950.6.14), 항공사단 교도련대 3대대, 『일보표』, NARA, RG 242, SA 2009, Box 5, Item 70.

1950년 5월 현재 추격기연대는 총 46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에는 추격기연대 제3대대의 통계는 없는데 통계가 누락되었는지, 비행기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총 46대 중 제1대대가 19대, 제2대대가 19대, 연대지휘중대가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추격기연대의 주력기종은 YAK-9P기로 총 46대 중 30대가 이 기종이었다. 그 외에 YAK-9M기가 8대, YAK-9V기가 2대, YAK-11기가 5대, PO-2기가 2대 있었다. YAK-9P기의 비행기 고유번호를 보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행사단이 총 100대 이상의 YAK-9P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추격기연대가 보유한 기종을 보면, 전투기가 44대, 연습기가 2대였다.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IL-10 전폭기(습격기)와 YAK-9 전투기(추격기) 총 60대가 추가 지원되었고, 6월 18일에는 소련 조종사들이 IL-10 전폭기(습격기) 60대를 연포비행장까지 직접 조종해서 인계하였다.⁴⁷⁾ 두 번 인계된 비행기는 추격기(YAK-9)보다 습격기(IL-10)가 많았다. 1950년 5월 현재 추격기연대의 비행기는 추격기 44대, 연습기 2대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민군이 두 연대에 동일한 수량의 비행기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습격기연대의 비행기도 습격기 44대, 연습기 2대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 따라서 1950년 5월 현재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기는 약 90~100대로 추정된다. 1950년 6월 25일 개전 당일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는 총 226대였다. 이 중 추격기가 84대, 습격기가 113대, 기타가 29대였다.⁴⁸⁾ 따라서 이는 1950년 4월과 6월에 인계된 비행기가 총 120대였고, 추격기보다 습격기가 많이 인계되었다는 기록은 사실로 보인다. 1950년 1월 3일만 해도 인민군은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같은 수의 비행기를 배당했었다. 그러나 인민군이 개전을 앞두고 폭격에 필요한 습격기를 추격기보다 더 많이 도입했음을

47) 장준익, 앞의 책, 132쪽.

48)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1951.12.3),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60쪽.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비행사단의 병력규모에서 1월 25에 비해 2월 20일에는 습격기연대의 총병력이 2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1월 25일에는 습격기연대와 추격기연대의 병력이 거의 비슷했으나, 2월 20일에는 습격기연대가 추격기연대 병력의 약 두 배가 되었다. 1950년 4월 소련 으로부터 습격기가 추가 제공될 것을 고려해 미리 습격기연대를 증편해 두었던 것이다.

1950년 2월 22일까지 비행사단이 육성한 비행사는 총 180명이었다.⁴⁹⁾ 개전당시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기는 총 226대로 추격기가 84대, 습격기가 113대, 기타가 29대였다. 추격기(YAK-9)는 1인승, 습격기(IL-10)는 2인승이었으므로, 필요한 비행사는 총 339명이었다. 2월 22일 이후에도 교도연대에서는 비행사를 계속 양성했으나, 4개월 동안 159명을 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비 비행사도 없었다. 또한, 180명의 비행사중 150명은 비행훈련기간이 불과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1950년 2월에 배출된 비행사였다. 결국 비행사의 83%가 비행훈련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속성과정을 졸업한 병력이었다. 따라서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사의 전투력 자체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비행사가 부족했으므로 공군의 전력유지는 불가능했다.

비행사단의 보유 비행기현황을 국군 공군의 보유 비행기현황과 비교해 보자. 국군은 1950년 6월 25일 현재 L-4기 8대, L-5기 4대, T-6기 10대 등 총 2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⁵⁰⁾ 게다가 국군이 보유한 L-4기와 L-5기는 연락기, T-6기는 훈련기로 전투기나 폭격기는 한 대도 없었다.⁵¹⁾ 비행사단은 6월 25일 현재 추격기 84대, 습격기 113대, 기타 29대 등 총 226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행사단은 국군의 9.7배에 달하는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력기종은 국군이 보유하지 못한

49) 朝鮮人民軍 855軍部隊 隊列科長 金明載, 「(비밀) 隊列人員證明書」(1950.2.22), 師團대 열과, 『日報』.

50) 공군본부 정훈감실, 앞의 책, 253쪽.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388쪽.

전투기와 폭격기였다. 따라서 북한 공군은 남한 공군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갖추고 전쟁에 투입되었다.

5. 비행사단의 무기상태

1950년에 들어와 비행사단은 소련에서 YAK기와 IL-10기를 도입해 전력을 급격히 증강했다. 그 결과 개전당시 비행사단은 총 226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비행사단은 독립된 사단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비행기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행사단의 전력은 불완전했다. 그것은 비행기 보유수에 비해 비행기의 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이다. 사실 인민군이 소련에서 구입한 비행기들은 2차 대전에 투입되었던 노후기종이었다.

북한정부는 소련 제9공군 군단에서 비행기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비행기들이 노후기종이라는 것이 밝혀져 인민군 공군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 반면에 북한정부가 이 비행기들을 구입하는데 지불한 비용은 신형 비행기를 구입비용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1949년 6월 22일 인민군 공군 비행훈련 고문인 추마크 소령이 쉬띠꼬프 대사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제9공군 군단에서 인수한 YAK-9형 전투기 21대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 주워모아 조립한 고철로서 1944~1945년 사이에 제조된 것들”이었다. 이 비행기들의 엔진은 모두 1~2회씩 수리된 것이며, 예비부품은 15~20%, 계기(計器) 등의 기구류는 50%만 보급되었고, 가장 필요한 부품은 대부분 부족하였다. 또한, 북한이 구입한 YAK-9형 전투기 21대 중 10대에 이상이 있었다. IL-10기의 상태는 YAK-9기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추마크 소령에 따르면, 소련 제9공군 군단이 지원한 IL-10기 33대는 1945~1946년에 제조된 기종이었다. 이 전투기들은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고, 예비부품의 50%가 확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중 6기에

문제가 있었다.⁵²⁾

즉, 비행사단 추격기연대가 보유한 YAK-9형 전투기 21대는 소련 제 9공군 군단이 쓰던 중고전투기였다. 이에 비해 습격기연대가 보유한 IL-10기 33대는 같은 중고전투기였지만 YAK-9기보다 1년 뒤에 생산 되어 상태가 좀더 양호했다. 그러나 추격기 21대 중 10대, 습격기 33대 중 6대가 기체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비행사단의 전투기가 심각한 수준이 있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북한은 이 전투기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차관형태로 제공받았고, 신형비행기 비용을 지불하고 중고비행기를 구입하였다.

반면에, 북한정부가 소련공군이 아닌 소련제조공장에서 바로 수령한 비행기들은 대체로 양호했다. 이 비행기들은 필요한 예비부품과 기구도 충분하였다. 소련대사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에 공급될 비행기 선정은 소련 제9공군 군단이 맡고 있으며, 제243호 지령에 의거해 중고비행기가 보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쉬띠꼬프 대사는 북한에 수리공장이 없으므로 수리해서 써야할 비행기를 보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스크바에 전달하였다. 또한, 그는 인민군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비부품과 훈련기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소련 제9공군이 새로운 비행기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제조공장에서 직접 북한에 비행기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⁵³⁾ 결국,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기 중 YAK-9기 21대와 IL-10기 33대는 소련 제9공군 군단이 사용하던 중고비행기였다. 그리고 이 비행기의 예비부품은 YAK-9기의 경우 15~20%만, IL-10기의 경우 50%만 확보된 상태였다. 또한,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종은 모두 2차대전 당시 사용하던 프로펠러기였다. 특히 항속거리가 짧아 200마일의 전투 행동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IL-10기만 한반도 남단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군 극동공군은 B-26경폭격기 73대, B-29중폭격기

52) 「쉬띠꼬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쿠노프, 앞의 책, 57~59쪽.

53) 「쉬띠꼬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쿠노프, 앞의 책, 57~59쪽.

27대, F-51전투기 47대, 제트전투기인 F-80전투기 504대, F-82전투기 42대, 수송기 179대, 정찰기 48대, 기타 항공기 252대 등 총 1,17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⁵⁴⁾ 기종은 차치하더라도 비행기 보유량만 북한 공군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개전 직전까지 비행사단 전투기의 노후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획문서에는 비행사단 추격기연대 제2대대 지휘중대에서 생산한 『중대 전정기계부분 고장과 불완전작업 통계부』가 들어있다. 이 문서는 1950년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2대대 지휘중대가 보유한 전투기의 전정기계부분 고장을 수리한 기록이다. 수리한 비행기는 모두 YAK-9기였다. 추격기연대의 수리기록을 살펴보자.

1950년 5월 7일 YAK-9 제11호기의 전정기부분 각실 접속통 2곳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한곳은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했으나 다른 한곳은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였다. 이날 YAK-9 제69호기의 전정기부분 두 군데에서도 고장이 발생했다. 5월 10일 YAK-9 제64호기의 전정기부분 송신기변압기가 동작하지 않아 수리하였다. 5월 17일에는 YAK-9 제69호기의 전정기부분에서 유격이 발생되어 수리하였다. 5월 19일에는 YAK-9 제63호기의 전정기부분 2곳이 고장났다. 한곳은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되었고 한곳은 발동기 진동으로 고장이 발생해 부품을 교환하였다. 5월 22일에도 YAK-9 제64호기의 전정기부분 3곳이 고장났다. 한곳은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되었고, 다른 2곳은 진동으로 인해 고장나거나 유격이 발생해 수리하였다. 5월 22일 YAK-9 제100호기의 전정기부분 다섯 군데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세 군데는 진동으로 인하여 부품이 끊어지거나 파손되고 유격이 발생하였다. 두 군데는 장기간 사용으로 부품이 파손되었다. 이 중 네 군데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고정시켜서 수리하였으나 한 군데는 부품이 없어서 고장난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였다. 5월 24일에는 YAK-9 제11호기의 전정기부품 두 곳이 고장났다. APT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5), 747; 763쪽.

계전기는 장기간 사용으로 볼트가 불량했고, 한곳은 발동기 진동으로 유격이 발생하여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하였다. 5월 25일 YAK-9 제69호기가 다시 고장났다. 이날 무기가감계가 파손되었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제69호기를 제1대대로 인계하였다. 6월 13일에는 YAK-9 제67호기의 속도계 고무도관이 파손되어 부품을 교환해 수리하였다. 6월 19일에는 YAK-9 제100호기에서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다. 6월 21일에는 YAK-9 제12호기의 전정기부분 한곳이 파손되었다. 제2대대는 부품이 없어 제1대대로부터 부품을 받아 수리하였다.⁵⁵⁾

수리기록을 정리해보면, 45일동안 고장이 발생한 전투기는 YAK-9기 제11·12·63·64·67·69·100호기 등 모두 8대였다. 이 중 제11·64·100호기는 45일동안 두 번이나 고장났다. 제69호기는 모두 세 번의 고장이 발생해 결국에는 추격기연대 제1대대로 인계되었다. 1950년 5월 현재 추격기연대 제2대대가 보유한 비행기는 총 19대였다.⁵⁶⁾ 이 중 8대가 고장난 것이다. 이 비행기들은 모두 소련에서 도입한지 1년도 안된 비행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원인 중 다수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었다. 소련에서 도입된 전투기들이 중고비행기였음을 증명해 준다. 또한, 추마크 소령이 지적했듯이 전투기 수리에 필수적인 예비부품의 부족문제도 매우 심각했다. 수리기록을 자세히 보면, 부품이 고장났으나 예비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거나, 다른 대대로부터 부품을 빌려 수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추격기연대의 YAK-9기는 개전직전까지 계속해서 기체결합이 발생했고, 전투기의 노후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사단이 보유한 기재에도 문제가 있었다. 1950년 5월 19일 현재 비행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총 47대였다. 차종별로 보면,

55) 김일현, 『비밀(No.1) : 중대전정기계부분 고장과 불완전작업 통계부』, 추격기연대 제2대대 지휘중대, 1950.6.21, NARA, RG 242, SA 2007, Box 8, Item 63.

56) 런대책임기사, 『5월간 런대전정기근무원 작업에 대한 보고서』 (1950.5), 제887군부대전정기 김영약, 『상부지도서철(No.2)』, 1950,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36.

운수차 29대, 휘발유보차 8대, 승용차 3대, 일반특수차 3대, 무전차 2대였다. 이 중 2대가 고장난 상태였다.⁵⁷⁾ 문제는 비행사단이 보유한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비행사단 후방부 자동차관리과에서 접수한 『3월분 자금신청보고서』에는 자동차수리에 지출된 비용이 적혀있다. 1950년 5월 한달동안 자동차수리에 지출된 비용은 총 7,727,070원이었다. 그런데 총수리비 지출액 중 국영기관에 지출한 금액이 130,000원이었음에 비해, 개인상점에 지출한 금액은 7,597,070원이었다.⁵⁸⁾ 총수리비용 중 개인상점에 지출한 금액이 98.3%였다. 다시 말하면 5월 한달간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공구·부속품·소모품의 98.3%를 개인상점에서 조달했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기재의 공급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에서 밝혀진 무기상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사단이 소련에서 인계받은 YAK-9기 21대는 노후기종이었으며, 이 중 10대에 문제가 있었다. 예비부품은 15~20%만 보급된 상태였다. IL-10기 33대는 종전후 생산되었으나 이 중 6대에 문제가 있었다. 이 기종의 예비부품도 50%만 확보된 상태였다. 결국, 비행사단이 보유한 습격기 113대 중 21대와 추격기 84대 중 33대는 중고비행기였다. 추격기연대 제2대대 지휘중대의 수리기록을 보면, 도입한지 1년도 안된 비행기의 고장원인이 대부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었다.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2대대가 보유한 19대의 비행기 중 8대가 고장났으며, 여전히 예비부품이 부족해 전투기 수리가 어려웠다. 결국 추격기연대의 YAK-9기는 개전직 전까지 계속해서 기체결함이 발생했고, 전투기의 노후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예비부품 부족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종은 모두 2차대전 때 사용하던 프로펠러기로 항속거리도 짧았다. 비행사단은 미 공군의 주력기인 제트기는 한 대도

57) 리화천, 「자동차손보통계표」(1950.5.19), 제871군부대 자동차중대장 김두히, 『3월분 자금신청보고서』, 1950.6.7,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42.

58) 자동차관리과장 리화천, 「월말자동차종합통계표」(1950.6.7), 제871군부대 자동차중대장 김두히, 『3월분 자금신청보고서』,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42.

없었고, 비행기 보유량도 1/5에 불과했다. 비행사단이 완편되었더라도 객관적 전력상 북한 공군은 미 공군에 대적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6. 맺음말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군의 전력은 국군 공군에 비해서는 압도적 우위였으나 미 공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졌다. 기존연구에서 북한 공군이 개전 초기에 궤멸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미 공군과의 전력차이를 꼽아왔다. 그러나 북한 공군이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멸된 데에는 내부적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미군노획문서를 통해 북한 공군의 병력과 무기를 살펴본 결과, 개전당시 북한 공군의 실제전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북한 공군은 정규군이 아니라 정규군 창설 도중 전쟁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전력이 불완전했다. 먼저, 비행사단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편제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창설 중이라 병력의 29%는 배치된 지 4개월밖에 안된 신병이었다. 특히 하사·병사에 비해 간부충원 비율이 떨어졌는데, 그 중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참모간부가 28.3%만 충원된 것은 비행사단 전력에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비행사단은 1950년 1~2월 제3기술대대와 습격기2연대를 창설해 부대를 증편하고 있었다. 신편부대에는 간부가 거의 배치되지 않아 개전당시 정상적인 부대운용이 불가능했다. 병력배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비행사단에서 병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기술대대였고, 다음은 교도연대,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였다. 실제 전투를 수행할 전투연대에 가장 적은 병력이 배치된 것은 북한 공군이 실전에 투입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전투연대와 사단본부에 군관을 집중 배치했는데, 이는 향후 정규군 창설시 병사를 급속히 충원해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처럼 정규군으로 창설되는 도중에 전쟁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북한 공군은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북한 지도부는 이같은 전력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쟁 직전 군사목표물을 폭격하는 습격기연대의 병력과 비행기를 두 배로 증원하였다.

둘째, 북한 공군이 보유한 무기·기재와 비행사의 실제전력은 장기전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개전당시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기는 총 226대였다. 이 중 추격기가 84대, 습격기가 113대, 기타가 29대였다. 북한 공군의 비행기 규모는 남한 공군에 비해 압도적 우세였다. 그러나 미 공군에 비하면 양과 질에서 완전한 열세였다. 북한 공군의 비행기 보유량은 미 공군의 1/5에 불과했고, 모두 프로펠러비행기로 미 공군의 주력인 제트기는 한 대도 없었다. 비행사단은 개전 직전까지 보유한 전투기만큼의 비행사도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비행사의 83%는 속성과정을 졸업한 병력이었다. 따라서 비행사의 전투력 자체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대체할 비행사도 없었다. 또한, 비행사단이 보유한 습격기 113대 중 21대와 추격기 84대 중 33대는 고장이 잦은 중고비행기였다. YAK-9기의 예비부품은 15~20%, IL-10기의 예비부품은 50%만 확보된 상태였다. 개전 4일 전까지도 비행사단은 노후기종의 잦은 고장문제와 예비부품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단소유 장비 수리에 필요한 기재를 대부분 개인상점에서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개전시 수리에 필요한 기재의 공급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은 사단규모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전쟁에 돌입했으나 전체적으로 북한 공군의 실제전력은 불완전했다. 비행사단은 비행기의 성능과 상태, 비행사 보유인원과 전투력, 예비부품의 보유량, 장비수리 기재 등 전투를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전력요소를 완비하지 못했다. 공군의 실제전력을 보면, 북한 지도부는 장기전이 아니라 선제타격을 통한 단기전을 계획한 후, 공군을 주력이 아닌 보조전력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이같은 군사전략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군을 통한

기동공격이라는, 프룬제 이후 소련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⁵⁹⁾ 북한 지도부는 기계화부대를 중심으로 한 지상군 전력 양성에 주력하였고, 이에 따라 공군 전력 양성은 지연되었다. 게다가 개전당시 북한 공군은 보조 전력으로서 지상군을 지원할만한 전력조차 완비하지 못했다. 결국, 북한 공군은 정규군의 전력과, 장기전을 수행할 전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한국 전쟁에 투입되었다. 이것이 북한 공군이 한국전쟁 초기에 궤멸된 내부적 요인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북한 공군, 비행사단,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 교도연대, 병력현황, 무기현황, YAK-9기, IL-10기, 한국전쟁

59) 이정하, 「미하일 프룬제의 군사사상과 총력전 구상」, 『서양사연구』 제27집, 한국서양사 연구회, 2001.4, 134쪽.

<ABSTRACT>

A Study on Actual power of the Air Force of Nor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force and weapon status of the Flight Division -

Kim, Seon-ho

The Air Force of North Korea was established in December, 1949. There had been 4,135 soldiers in the flight division right before the Korean War. Among all troops in the flight division, the technical battalion had the greatest number of soldiers and the training regiment was the next. Then the fighter-bombers and the fighter Regiment were in sequence. Under the direct command of the Flight Division, the repair section had the most. 60% of officers in the flight division were intensively deployed in the combat unit and the training unit. 91.8% of sergeants were deployed in the combat unit, the training unit, and the technical unit. 75.7% of soldiers were heavily deployed in the technical unit and the training unit.

In 1950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airplanes in the Flight Division was 226. The flight division produced 180 pilots by February 22, 1950. However 83% of the pilots only had 6 or 7 months of flight training. Therefore, the level of skill of the pilots was low and they had no alternative pilots. Moreover, 21 of 113 fighter-bombers and 33 of 84 fighter-planes of the Flight Division were second hand planes. Until the time of the Korean War the flight division didn't solve problems such as the malfunction of the decrepit planes and lack of spare parts.

Fighting power of the flight division had been builded up through weapons from the Soviet Union since 1950. Nevertheless, the flight division still had a lot of problems in terms of actual power. The flight division couldn't prepare supporting elements of force integration such as planes, pilots and spare parts. And only 63% of a full strength were recruited to

the flight division by January 28, 1950. Especially, the fact that only 28.3% of staff officers were recruited to the flight division was a serious problem. And at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29% of soldiers in the flight division were new recruits who had been deployed 4 months before. The flight division had 9.7 times more planes than the Air Force of South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war, but much less than the Air Force of U.S.A. Finally the Flight Division was engaged in warfare with no prepared regular power. And it was an internal cause of the Air Force of North Korea's failure in the earlier part of the Korean War.

Key Word : Air Force of North Korea, Flight Division, Fighter-bombers Regiment, Fighter Regiment, Training Regiment, Personnel Status, Weapon Status, Unit formation, YAK-9 Fighter, IL-10 Fighter-bombers, Korean War

